

신라와 서아시아의 만남

2017. 11. 23.(목)

김창석 *

1. 이슬람인의 내왕
2. 페르시아인·소그드인의 진출
3. 아라비아인의 到來

1. 이슬람인의 내왕

이 달에 大食國의 悅羅慈 등 100인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高麗史』卷5 世家5 顯宗 15年 9月)

9월 辛巳에 大食 오랑개인 夏訛, 羅慈 등 100인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위의 책, 卷5 世家5 顯宗 16年)

11월 丙寅에 大食國 客商인 保那盍 등이 와서 수은, 龍齒, 점성향, 몰약, 大蘇木 등을 바쳤다. 유사에게 명하여 館에서 후대하게 하고 돌아갈 때는 金과 皮단을 많이 주었다. (같은 책, 卷6 世家6 靖宗 6年)

아라비아인들의 발길이 이때 한반도에 처음 미친 것일까? 중국의 경우 唐 영희 2년 (651) 大食에서 사절을 보내 공식 관계를 맺었고, 751년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 군대가 唐軍을 격파한 이후 당과 활발한 교류가 이뤄져 長安, 廣州, 泉州, 明州, 杭州, 揚州 등의 蕃坊에 무슬림들이 집주하고 있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남북국시기 이전에 이미 아라비아인이 신라 사람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신라에 관해 기록한 9세기의 이슬람 문헌들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간수(Qansu)의 맞은 편 중국의 맨 끝에 신라라는 산이 많은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領主國들로 갈라져 있다. 그곳에는 金이 풍부하다. 이 나라에 와서 영구 정착한 이슬람교도들은 그곳의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눌러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나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븐 쿠르다드비, 『제도로 및 제왕국 안내서』)

* 강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 Harvard 대학 Visiting scholar 역임.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2013, 서울대출판문화원),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Laws of Silla from the 3rd-5th Centuries”, *Korea Journal*, vol. 57, no. 3.

바다를 끼고 접한 곳에는 시라(ad-Sila)라는 섬들이 있는데 그 주민은 피부색이 희다. 그들은 중국 황제와 공물을 교환한다. 그들은 중국 황제와 공물을 교환하지 않으면 하늘이 비를 내리 주지 않는다고 믿는다. 우리들 중에 그들에 관한 정보를 전해주는 자도 이 섬에 가 본 자는 없다. 이 섬에는 흰 매가 산다. (술라이만, 『중국과 인도 안내서 1권』)

무슬림의 영구 정착이라는 기술은 문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들의 주류는 아라비아인이 아니었으며 신라 산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고려하면 이들이 국제교역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들이 필요에 따라 외국에 한동안 체류하거나 일부가 귀화하여 그 사회에 편입되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이를 일반화하여 신라에 간 무슬림들이 ‘영구 정착’했다고 볼 수는 없다.

9세기 중엽 이전에는 비아라비아계 무슬림들이 신라에 왕래하는 상황이었고, 아라비아인들은 아직 신라에 가지 못하고 그 나라에 대한 간접 정보만 갖고 있었다. 본격적인 사료 비판이 이뤄지지 못한 소략한 기록을 통한 추측이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이와 같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9세기 중엽 이전 신라를 찾은 비아라비아계 무슬림들은 누구일까?

2. 페르시아인 · 소그드인의 진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해당하는 아무다리야강과 시르다리야강 중간 지역을 古來로 소그디아나(Sogdiana)라고 불러왔는데, 이 지역 오아시스 諸國 출신의 종족이 소그드인이다. 이들은 기원전부터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그리이스, 스키타이, 그리고 기원후에는 쿠산왕조, 서돌궐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으며 7세기 중엽에는 唐의 서역 경영에 의해서 안서도호부의 통제 아래 있었다. 사마르칸트(康國)와 부하라(安國), 타슈켄트(石國)를 중심으로 한 소그디아나 지역은 東西로 중국-서아시아-유럽을 잇고, 南北으로는 인도-북아시아 초원지대를 잇는 교통의 요충이었다.

소그드인들은 중앙아시아의 여타 오아시스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관개농업과 목축을 하며 생활했고 그 과잉인구는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했다. 특히 원거리 교역에 특장을 보였으니 “康國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곧 입 속에 꿀을 넣고 손에는 아교를 쥐어준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입으로는 항상 감언을 말하고, 손은 아교에 물건이 붙듯이 재물을 모으도록 기원해서이다. 글씨를 잘 쓰고 장사를 잘 해서 작은 이익이라도 다룬다. 남자가 20세가 되면 교역을 위해 타국에 보낸다. 이들이 중국에도 오는데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그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기록이 이를 잘 보여준다.

소그드인들은 당에서 ‘商胡’ ‘興胡’로 불렸으며, 조공 및 互市 교역을 벌임은 물론 당 내지 깊숙이까지 진출하여 활동했다. 그리고 당 이전부터 중국 내지에 자치적인 취락을 형성했다. 이들 취락은 분포 범위가 광활하여 중국 내지의 대도시에 국한되지 않았다. 4세기 초의 돈황, 5호16국시기 최대의 교역시장인 姑藏, 그리고 실크로드 연변의 로브노르(蒲昌海) 남쪽에 있는 石城鎮, 하미(伊州), 투르판, 토크막(素葉城), 탈라스 등에 소그

드인의 취락이 있었고 여기에 상인과 농업이민이 거주했다. 몽골리아의 남오르도스, 바이발릭(富貴城), 오르혼 강변의 도시, 세미레체 지역 등에서도 소그드 취락이 확인된다.

이들은 사마르칸트 지역이 이슬람 세력에게 점령당한 8세기 초, 그리고 8세기 중엽~9세기 중엽에 걸쳐 위구르(回鶻)의 지배를 받은 시기에도 오히려 동방에 분산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페르시아인은 8세기 중반까지 대중국 해상 교역을 주도했다. 이 시기에 쓰여진 唐 승려 鑑眞의 渡日 기록인 『唐大和上東征傳』을 보면, 海南島와 廣州에 페르시아 선박이 香藥과 진귀한 보물을 산처럼 신고 정박해 있었다고 한다. 또 일본의 경우 736년에 건당 사가 귀국할 때 페르시아인이 따라 왔는데 그에게 관위를 수여한 바 있다.

신라 유물 중에서도 皇南大塚 北墳과 天馬塚에서 출토된 유리잔의 컷팅 기법과 계림로 14호분 출토 金裝短劍, 그리고 여러 유물에 나타난 雙禽文과 連珠文이 페르시아 계통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페르시아인이 신라를 직접 내왕한 경우도 있었으리라 본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은 8세기 후반부터 민간상인이 국제교역에 진출한다고 보므로 당에서 활동하던 페르시아 상인들도 이런 여건에 편승하여 한반도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河西 지역 거류민 가운데는 소그드인이 非漢族 출신으로서 가장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唐代에 이들은 주로 상인과 武將으로 활약했으며 ‘胡’는 곧 소그드인을 지칭할 정도였다. 주지하듯이 安祿山の 아버지가 소그드인이었고, 顏眞卿도 원래 소그드계 성씨인 康氏의 인물로서 742년 당조에 귀부했다. 그리고 754년 鑑眞을 따라 일본에 간 安如寶도 소그드계 인물이었다. 安·康·石·史·曹姓은 소그드인이 중국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성씨였다.

문제는 소그드인의 신라 내왕 여부이다. 일본 법류사 소장 香木 중에 페르시아의 팔라비(Pahlavi) 문자를 새기고 소그드 문자의 烙印을 찍은 白(梅)檀香 두 점이 있다. 이 향목의 원산지는 인도 혹은 인도네시아이지만 페르시아인과 소그드인의 중계를 거쳐서 8세기 중엽 이전에 일본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시 신라의 對日 교역품 가운데 향료가 주요 품목의 하나였으므로 신라인이 소그드인 교역 상인으로부터 이 향목을 입수하여 일본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그드인은 광역을 이동하고 분산 거주하면서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景教), 불교, 이슬람교를 동방 각지에 전파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당나라 시기인 635년에 중국에 전해졌다. 주지하듯이 경교 관련 유물은 길림성 훈춘현의 八連城과 연해주 아브리코프 절터와 같은 발해 유적뿐 아니라 경주 일원에서도 돌 십자가, 십자문 장식이 나온 바 있다. 경교는 발해와 신라에도 유입되었고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 유입 경로는 당 혹은 발해와의 교류를 통한 간접 수용과 함께 景教徒 소그드인의 신라 방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성왕릉으로 추정되는 掛陵과 興德王陵의 무인석상도 종래 서역인 혹은 아리안계 인물로 막연하게 추정했으나, 용모의 특징으로 지적되던 ‘深目高鼻’와 풍성한 수염은 분명히 소그드인의 특징이다. 소그드인이 왕래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역시 그들을 모델

로 하고, 당나라에서 활약하던 소그드 무인에 대한 전문까지 더해져 형상화된 것이 이들 무인상이라고 생각된다.

3. 아라비아인의 到來

755년 반란을 일으킨 安祿山은 소그드인의 피를 타고 났지만 소그드의 부족적 배경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친위대인 曳落河도 투르크, 奚, 거란족 병사들을 擬制的 부족관계로 편제한 것이었다. 하지만 安史亂의 전개 과정에서 소그드 사회는 난의 영향을 받았다. 반란 초기 長安이 함락되자 河西와 隴右 지역의 투르크, 소그드가 돌궐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나 당과 위구르 연합군이 이를 진압했다.

그리고 당에 머물던 위구르인들이 소그드인과 접촉하면서 이후 위구르 제국 내에서 소그드인들의 영향력이 급증했다. 소그드 상인은 당과 위구르 사이의 絹·馬 교역을 대행하고 마니교를 위구르에 전파했다. 하지만 8세기 후반 당은 교역의 부담 때문에 소그드 상인들의 활동을 제한했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놓고 위구르 내에서 정변이 발생하여 카간을 지지하던 소그드 상인들이 학살당하기도 했다. 755년에 安史의 난이 발발하면서 소그드 사회에 밀어닥친 파문이 소그드인을 다시 한 번 각지로 분산시켰고, 신라와 발해 지역에도 그 영향이 미쳤던 것이다.

페르시아인들이 처한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안사의 난을 진압하던 田神功의 군사가 揚州에 들어가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페르시아인 수천 명을 살해했다. 이는 현저히 드러난 사건에 불과할 것이다. 당 내부의 혼란상은 그곳에서 활동하던 이종족들의 동향에도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 특히 상인들은 안정적인 교역환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역 대상지를 찾아 東進함으로써 출로를 모색했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쿠르다드비의 전언에서 9세기 이슬람 교도의 신라 정착이 운위되는 것은 바로 8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페르시아인, 소그드인을 중심으로 한 무슬림들이 신라에 진출하여 일부는 그곳에 정착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8세기 중반 이후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페르시아인을 비롯한 제종족의 이슬람화가 진행되었으며 8세기 후반 이후 중국에 渡航하는 서아시아 상인들은 대부분 무슬림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을 거쳐 신라로 온 이들 가운데 아라비아인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안사의 난 와중에 양주에서 피해를 입은 ‘商胡’를 페르시아인과 大食人이라고 적은 기록도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술라이만의 언급을 상기하면 9세기 중엽까지 무슬림 중 아라비아인의 신라 내왕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고 보아야겠다.

이슬람 제종족 중 아라비아인은 압바스 왕조가 성립한 8세기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이들 역시 국제교역 상인들이 주류였으며, 티벳과 위구르가 세력을 확장하여 기존의 오아시스로, 초원로를 차단하자 아라비아의 발달된 조선평과 항해술을 활용하여 海路를 통해 중국에 왔다. 이로 인해 廣州·泉州·杭州·揚州 등 중국의 동·남해안 도시에 이슬람 거류민들의 蕃坊이 분포하게 된 것이다. 이곳은 이슬람인의 自治가

허용되어 모스크가 건립되기도 했으며, 당 말 이후로는 서서히 漢化가 진행되어 무슬림이 고위 관료나 文人으로 출세하기도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에 진출해서 교역 거점에 거류하면서 중계 역할을 담당했던 아라비아인들 중에 안사의 난 이후 신라로 진출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9세기에 들어서면 신라의 민간 교역인들이 張保臯 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당 - 신라 - 일본 간 교역을 독점하게 되므로 9세기 전반에는 왕래의 빈도가 격감했을 것이다. 이는 페르시아인, 소그드인 출신의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이다.

당에서 활동한 新羅 僑民들은 山東半島의 해안 지역과, 회하와 양자강을 잇는 運河 연변의 泗州 연수현, 楚州 지역에 集住하고 있었다. 분포 지역의 남쪽 한계선이 현재로서는 절강성의 태주만 부근까지 확인되는데, 아라비아인 거류지는 중국 동·남해안의 북쪽으로 揚州線까지 미쳤다.

따라서 양주·소주·항주·명주·태주 지역은 신라인과 아라비아인의 거류지가 겹치거나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들 간의 교역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었다. 장안에 거류하던 아라비아인과 신라 사절단·유학생의 거래도 물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재당 신라 교민 혹은 체재자가 이슬람 상인이 가져온 각지의 교역품을 중계하여 신라와 일본으로 공급하는 교역구조 속에서, 아라비아인이 굳이 신라까지 직접 왕래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보고가 피살당하고 851년 청해진이 폐지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종래 신라 상인이 독점하다시피 하던 동아시아 海上交易圈에 일시적으로 공백 상태가 조성되었고, 당·발해·일본 상인들이 이를 대신하여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아라비아 상인들도 이에 편승하여 신라로 진출했으리라 본다. 당 내지에서 자신의 교역품을 중계해 줄 신라 상인들의 활동이 쇠퇴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 일차적이었을 것이다.

당 내부의 정세 변화도 아라비아 거류민들의 동향에 영향을 미쳤다. 845년 唐 武宗은 佛寺를 훼손하고 승려를 환속시키며 사찰 소유 노비와 장원을 몰수하는 ‘會昌 廢佛’을 단행했다. 불교계의 타락과 사원 경제의 비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사회적·문화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었다. 폐불 과정에서 불교뿐만 아니라 景教, 조로아스터교(祆教), 마니교 등 외래 종교도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비해 중국의 고유 종교라 할 수 있는 도교는 제외되었던 것이다. 國際主義 성격이 강하던 당 제국의 정책에 대한 일종의 반동이었으며 민족주의적 색채를 띤 종교 탄압운동이었다.

그리고 875~884년에 걸쳐 王仙芝와 黃巢가 주동이 된 전국적인 반란이 일어났다. 황소의 반란군은 877년 무렵 廣州를 공격했다. 광주는 당시 손꼽히는 교역항으로서 번성하였으므로 이곳을 차지하면 재물을 확보함은 물론 동서 교역의 루트를 장악할 수 있었다. 소금 밀매 상인 출신인 황소의 식견이 발휘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광주에 거주하던 수많은 異教徒들이 죽음을 당했다.

(黃巢의) 야망은 커져갔고 허다한 중국의 도시 중에 칸푸(Khanfu, 廣府)로 진격했다. 칸푸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찾는 곳으로서 …… 포위 공격은 오래 계속되었다. 回曆 264년(877·8)에

일어난 일이었다. 마침내 황소는 승리하여 주민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말았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살해된 중국인을 제외하고도 그 도시에 살며 장사를 하던 무슬림, 유대교도, 기독교도, 조로아스터교도 12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한다. 이렇게 죽은 네 종교의 신도들의 정확한 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인이 그 사람의 수에 따라 課稅했기 때문이다. (아부 자이드, 『중국과 인도 안내서 2권』)

이 기록은 10세기에 아부 자이드라는 무슬림 작가가 851·2년에 쓰인 술라이만의 기록과 그 후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남긴 것이다. 이종족에 대한 학살과 약탈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활로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신라도 그 대상지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2016 『신라사대계』(1~30권)
한국고대사학회, 2017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 2』, 주류성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2016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김창석, 2013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출판문화원

※ 참고자료 열람

1.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2.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